濟州島硏究 第51集
2019. 2. pp. 89~121.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 검토

정 진 희*

국문요약

제주 설화 속 여성 거인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의 창조 여신이라는 주장은 현재 학계의 보편화된 통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수의 반론이 없지 않은바, 본고는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을 뒷받침해 온 몇 가지 근거를 재검토함으로써 학술적 입론으로서의 정합성을 따져 보았다. 설문대 할망이 천지를 분리하고 제주 섬을 창조했다는 근거로 제시된 설화 각편에서 분리와 창조의 실제 주체는 설문대 할망이 아니라 별개의 인물이고, 조선 시대 설문대 할망이 여신으로 믿어졌다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장한철의 『표해록(漂海錄)』에 기록된 ‘선마(詵麻)’는 설문대 할망과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가 미흡하며, 설문대 할망이 산신굿의 제향 대상이었다는 근거로 제시되곤 하는 장주근 채록의 무가 자료와 이성준의 조사 자료는 두 자료 모두 설문대 할망이 의례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는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성 거인 창세신이 주변 민족 신화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은 오키나와의 사례가 반례가 될 수 있음을 들었다. 이에 따라, 설문대 할망이 제주의 창조 여신이었다는 학술적 입론은 정설로 자리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충분치

* 아주대학교

않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본고의 결론이 설문대 할망이 창조 여신이 아니라는 데 이르지는 않는다. 이즈미 세이치(泉精一)가 채록한 자료는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의 한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자료는 설문대 할망이 제주의 토착신이 아니라 외래신(外來神)이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이 정설이 되려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설문대 할망 설화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함을 구체적 과제와 함께 제안하였다.

주제어 : 설문대 할망, 설화, 제주도, 창조 여신, 여성 거인, 외래신

Ⅰ. 정설의 자격

제주도 구비 설화 세계에서 전승되는 <설문대 할망> 설화에서, 설문대 할망은 키가 아주 큰 거인이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구비문학 채록 초기의 설문대 할망 설화 각편들은 설문대 할망이 키가 큰 거인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 단편적 삽화와 일화로 이루어져 있다(정진희, 2018: 168-178). 그러나 작금의 문화 공간에서, 설문대 할망을 대표하는 캐릭터는 그가 '창조의 여신'이라는 것이다. '제주를 창조한 여신 설문대 할망'은 아동용 재화(再話)를 비롯한 여러 문화 콘텐츠로 재현되어 왔고, 제주도에는 이를 전시 테마로 삼아 관련 문화 행사를 해마다 시행하는 '제주돌문화공원'이라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

문화 전반에 퍼져 있는 '창조 여신 설문대 할망'이라는 관념은,학술 담론으로도(장주근, 1957; 이성준, 1989) 꾸준히 제시되어 온 바 있다. 과거 창조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여신이 신성성을 잃고 퇴락한

결과, 여성 거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설문대 할망> 설화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설문대 할망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의 여성 거인 설화를 전체적으로 일별하면서 여성 거인 설화는 여신 신화의 설화적 추락이라는 견해가 제출되어 온 한편(강진옥, 1993; 권태효, 1998), 2000년대 이후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린 몇 차례의 학술대회를 계기로 관련 논문이 거듭 나오면서(전경수, 2009; 조현설, 2010; 박종성, 2010; 허남춘, 2013; 2014; 권태효, 2014 등), 설문대 할망이 제주를 창조한 여신이라는 학술적 입론은 통설에 가까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에 대한 학술적 반론이 소수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용준이 이미 설문대 할망 이야기를 창조 신화로 단언하는 데 대해 판단을 유보한 채 더 많은 연구를 요구한 바 있고(현용준, 2009: 76-77), 송화섭은 설문대 할망을 포함한 한국의 마고 할미 설화가 중국의 마고 선녀 이야기 및 관음 신앙과의 관련 하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송화섭, 2008).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 대한 사계의 반응은 지극히 미미하다.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의 창조 여신인가 하는 문제는 설문대 할망의 신성 여부, 설문대 할망의 설화적 계보 등에 있어서 다른 견해가 있기에 충분히 논쟁의 주제가 될 수 있음에도, 세부적 논점과 쟁점을 둘러싼 본격적 논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학계 밖의 대중 미디어(<미디어 제주>)가 이에 대한 논쟁을 제안한 바 있다. '설문대 할망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구하면서, 설문대 할망이 창조 여신이라는 주장을 '거짓'이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단언하는 <거짓투성이 설문대 할망 신화>라는 제목의 연속 기고문(장성철, 2017)을 게재한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학계의 대응은 별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의 제안은 답신 없는 독백이 되어 버렸다.

아카데미아 밖에서 제기된 제안이라고 해서 경시되어서는 곤란하다. 가령 '환빠'라고 폄하되기도 하는 이른바 일부 '재야사학자'들의 주장을 상기해 보자. 거론할 가치가 없는 아마추어들의 주장이라는 학계의 도외시와 함께 오히려 그 세력이 확장된 감이 없지 않고,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학술적 반론이 제시되고 있다. 대중 지성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전문가는 동일 분야의 또다른 전문가의 질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 혹은 전문가의 자격을 따지 못한 대중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에 대해서라면, 그것은 아카데미아 분과 학문의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의 비전문가가 주장하는 다른 논의가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학계 내부에서도 소수이지만 이론이 제기된 바 있다. 각기 다른 시각의 주장과 해석이 병립할 수 있음을 보호막 삼아,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따져야 할 문제에 대한 논쟁을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학술적 입론으로서의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 다시 말해 설문대 할망이 '과거'에 제주의 여신이'었'다는 입론이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반론이나 비판에 따르는 검증과 확인의 무게를 견딜 때, 학술적 '통설'은 비로소 '정설'의 자격을 획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론의 여지가 극복된 통설을 정설이라 규정할 때, 통설은 통설에 대한 이의 제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정설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거나 극복과 수정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설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의식 하에서 이 글은, 선행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면서 소위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을 구성해 온 대표적인 세부 논지와 그 논거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 한다. 특히 설문대 할망이 제주 섬을 만들었다는 '설문대 할망의 제주 섬 창조설', 설문대 할망

이 제주 사람들의 신앙 대상이었다는 '설문대 할망 여신설'에 주목하여, 이를 그 근거와 함께 다시 살펴봄으로써 입론의 정합성을 따져보려 한다. 덧붙여, 주변 민족 신화에서 창조신적 면모를 지닌 여성 거인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여성 거인 설문대 할망이 창조신적 일반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론적 타당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이 글의 목적은 '학술적 입론'으로서의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이 과연 논쟁을 불허할 만큼의 학술적 권위를 지닌 주장인지, 다시 말해 정설의 자격을 갖춘 입론인가 하는 점을 확인하는 데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작금의 문화 현장에서 설문대 할망은 창조 여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문화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시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따지는 문화 연구의 대상이다. 가령 설문대 할망이 제주를 창조한 여신으로 믿어진 적이 없음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오늘날 설문대 할망을 제주 창조 여신으로 표상화하는 문화적 현상마저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설문대 할망이 제주의 창조 여신인 적은 없었지만 오늘날 창조 여신으로 향유된다는 것과, 설문대 할망이 잊혀진 제주의 창조 여신이었다가 오늘날 여러 문화 공간에서 창조 여신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지니는 의미는 엄연히 다르다. 설문대 할망이 창조 여신이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설문대 할망이 작금의 문화 공간에서 여신으로 여겨지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도 또 서로 다른 문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본고를 필두로 하여 필자가 최종적으로 밝히고 싶은 문제는, 설문대 할망이 과거에 제주도의 창조 여신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특정 지형과 관련되는 전설적 성격이 강한 이야기인 설문대 할망 설화가 '신화'에 뿌리를 둔 이야기인가 하는 문제다. 결국, 필자의 문제의식은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

설’의 시비를 가리는 데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여러 논제들을 본고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다. 강조하건대, 본고가 다루려는 논제의 범위는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의 논리적 정합성을 따져보는 데 한정된다.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이 다른 주장이나 논쟁의 제안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학술적 권위 혹은 정설로서의 자격을 갖춘 입론인가 하는 점을 살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선행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살피면서 ‘설문대 할망’이라는 설화적 존재의 실상에 접근하는 논의 과제를 설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은 설문대 할망에 대한 필자의 문제 의식으로부터 비롯될 여러 관련 논의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대 할망이 창조 여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말해 설문대 할망 설화가 신화로부터 비롯된 설화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와 가치가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기존의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이 정설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섣부른 기대를 막기 위해 반복하여 말하자면, 본고의 목적은 설문대 할망이 제주의 창조 여신이었나 하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입론을 세우는 데 있지 않다.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이라는 학술적 입론이 정설처럼 자리하면서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토론과 논쟁의 여지가 사라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과연 온당한가를 따지는 것이 본고의 당면한 목적이다. 논란의 불씨가 오히려 지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Ⅱ. 설문대 할망의 제주 섬 창조설 검토

1. 텍스트의 일차적 독해를 둘러싼 문제

제주도의 구비 전승은 설문대 할망이 산이나 오름 같은 거대 지형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소섬이 생겨난 것도 설문대 할망에 의해서이다. 이런 설화상의 행적은 설문대 할망을 창조 신격으로 보는 주요한 근거 중의 하나인데, 특정 지형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나 특정 신격이나 신성성과 연관되는 신화이지는 않다는 점에서 설문대 할망의 창조여신설에 대한 절대적 근거로 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런데 최근, 설문대 할망이 특정한 지형이 아니라 천지를 분리하고 제주라는 섬 자체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각편[1]이 제시됨으로써 설문대 할망이 제주의 창조 신격이라는 주장이 강화되었다. 천지 분리라는 우주적 창조 행위, 제주 신화의 물리적 배경이 되는 제주 섬을 창조한 행위의 주체가 설문대 할망으로 나타나는 각편이 있는바, 이는 창조 여신 설문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설화라는 것이다(권태효, 2014; 신동흔, 2014; 허남춘, 2014).

<가>

조사자 :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어떵ᄒᆞ영(어떻게 해서) 만들엇댕(만들었다고) 홉니까?

제보자 : 요전이 아으덜(아이들)이 전설을 써 주시오 ᄒᆞ기에 써 줘신디(주었는데), 뭐옌(무어라고) 써줘싱고(써 줬는고) ᄒᆞ니, 엿날에는 여기가 하늘광(하늘과) 땅이 부뗫다(붙었다). 부뗫는디 큰 사름이 나와서 떼여 부렷다(버렸다). 떼연(떼어서) 보니, 여기 물바닥이라 살 수가 엂으니 ᄀᆞᆺ디로(가로) 물을 파면서, 목포(木浦)ᄁᆞ지 아니 파시민(팠으면) 질을(길을) 그냥 내불테인디(버릴 터인데) 그ᄁᆞ지 파부니(파 버리니) 목포도 끊어젓다.

1) '각편'은 채록 자료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개별 작품 하나하나를 일컫는 '각 편'과는 그 함의가 다소 다르다. '각편'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심사자의 지적이 있어 주석으로 해명해 둔다.

그것은 그때에 여기를 육지 맨드는(만드는) 법이 잘못ᄒᆞᆫ 거쥬. 기연디(그런데) 설문대할망이 흑(흙)을 싸다가, 거길 메울려고 싸다가 걸어가당(걸어가다가) 많이 떨어지민 큰오롬이 뒈곡, 족게 떨어지문 족은 오롬이 뒈엿다, 그건 엿말입니다.

조사자 : 어떵마씸?

제보자 : 치매(치마)에, 치매에 흑(흙)을 싸다가 많이 떨어지민 한라산이 뒈곡, 족게(적게) 떨어지민 도둘봉이 뒈엿다, 그건 엿날 전설이곡. / 저 생각으론 이 제주도를 처음 맨드는 분이 잘못 생각ᄒᆞ엿어. ᄉᆞ방으로 흑을 지쳐시민(위로 던졌으면) 바다는 바다대로 가곡, 육진 돌라져시민(도려내졌으면) 뒐 건디, 웨 육지레(육지로) 가는디 파부럿느냐, 나 ᄀᆞ뜨민(같으면) 파지 맙셍(마시라) ᄒᆞ컬(할 걸).

조사자 : 육지ᄒᆞ곡 부뗫당은에(붙었다가는)

제보자 : 부뜬(붙은) 게 아니고 전부 물바다로 보아서 하늘광 땅이 부뗐는디 천지개벽ᄒᆞᆯ 때 아미영ᄒᆞ여도(아무리하여도) 열린 사름이 이실 거라 말이우다. 그 열린 사름이 누게가 열렷느냐 ᄒᆞ민 아주 키 크고 쎈 사름이 딱 떼어서 하늘은 우테레(위로) 가게 ᄒᆞ고 땅을 밋트로(밑으로) ᄒᆞ여서 ᄒᆞ고 보니 여기 물바다로 살 수가 읎으니 ᄀᆞ드로(가로) 돌아가멍 흑파 올려서 제주도를 맨들엇다 ᄒᆞ는디 거 다 전설로 ᄒᆞ는 말입쥬.

조사자 : 하, 다 바당이엇는데 예.

제보자 : 예. (현용준 외, 1981: 711-712)

위의 설화가 설문대 할망이 천지를 분리하고 제주 섬을 만들었다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설화에 등장하는 '큰 사람', '이 제주도를 처음 만든 분', '천지개벽할 때 (세상을) 연 사람', '아주 키 크고 센 사람'이 '설문대 할망'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자료를 이렇게만 읽을 수 있을까? 위의 설화에서 천지를 분리하고 흙을 파 올려 제주섬을 만든 이와, 육지와 분리되어 버린 제주섬을 연결하려다 치마에 싼 흙을 떨어뜨려 한라산과 도둘봉 오름을 만든 설문대 할망은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조사자는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한 제보자의 핵심적 대답은 '기연디'에서부터 시작되어 '그건 엿날 전설이곡' 하는 부분이다. 설문대 할망이 치마에 흙을 싸서 걸어다가다 흘린 흙이 한라산이며 도둘봉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설문대 할망은 치마에 흙을 싸서 걸어가야 했을까? 끊어진 곳을 메우기 위해서다. 육지와 제주섬을 연결하는 연륙교를 놓아주마던 설문대 할망 설화의 대표적 이야기와 상통한다. 제보자는 그 끊어진 것이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인가도 설명하는데, 이는 제주 섬을 처음 만든 이의 잘못으로 그려진다. 하늘과 땅이 붙어 있고 땅은 온통 물바다인 시절, '큰 사람', '아주 키 크고 센 사람'이라 표현되는 이가 하늘과 땅을 분리했다. 분리하고 나니 온통 물바다라, 그 큰 사람은 흙을 파 올려 제주섬을 만들었다. 이 때 흙을 잘 파 올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 큰 사람이 흙을 잘못 파 올리는 바람에 제주와 목포로 가는 길은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천지 분리의 이야기는 제주와 목포 사이가 끊어지게 된 까닭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어떤 큰 사람이 천지를 분리하고 물바다였던 곳에 흙을 파 올려 제주섬을 만들었는데 그만 잘못하여 제주와 목포 사이가 끊기고 말았다'라는 내용이다. 제보자가 생각하는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을 만든 경위란, 어떤 큰 사람이 천지를 분리하고 제주를 육지에서 끊어지게 만들었는데, 설문대 할망이 그 끊어진 데를 메우려다 흙이 떨어져 생겨난 일이다.

천지를 분리한 큰 사람과 설문대 할망은 같은 사람인가? 천지를 분리한 존재는 제주도의 다른 구비전승, 즉 본풀이에서 '도수문장'으로 나타나곤 한다. 진성기가 채록한 고창학 심방 구연의 <초감제>를 보자.

<나>

(…)/옥황이 도수문장 굽어보니/ 하늘광 땅이/ 늬귀 즘쑥 떡징겉이 눌어,/ 늬귀가 합수ᄒᆞ니/(중략)도수문장이 ᄒᆞᆫ 손으로/ 하늘을 치받고/ 또 ᄒᆞᆫ 손으로 지하를 짓 눌러,/ 하늘 머린/ 건술 건방 ᄌᆞ방으로 도업ᄒᆞ고/ 땅의 머린/ 축방으로 올립네다.(…)(진성기, 1991: 655)

천지가 열릴 때의 이야기이다.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는데, 하늘 옥황의 '도수문장'이라는 존재가 하늘과 땅을 분리하였다고 한다. 앞의 설화에서는 이름없이 그저 키 크고 힘 센 사람이라고 말해지던 이와 동일한 행위의 주체가, 이 본풀이에서는 '도수문장'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도수문장은 <초감제>류 본풀이의 몇몇 각편에서 천지를 분리하거나 반고의 앞뒤 이마에서 눈동자를 떼어다가 해와 달을 만든 이로 등장하는 존재다.

요컨대 제주의 상상계에는 천지 분리, 일월 생성 등 세상이 열린 데 일조한 키 크고 힘 센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는 본풀이에서 '도수문장'으로 형상화된 바 있다. '제주도를 처음 만든 큰 사람'과 끊어진 곳을 메우러 걸어가다가 흙을 떨어뜨려 한라산이니 도둘봉이니 하는 산을 만든 설문대 할망이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은, 이런 맥락에서 더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

2. 채록 텍스트의 개작 가능성

그런데 흥미롭게도, 천지 분리의 주체가 설문대 할망으로 나타나는 다른 자료가 있다.

---

2) 장성철의 기고문에서도 본고와 같은 시각의 일차적 독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 무속 연구의 권위자인 강정식 역시, 제주돌문화공원 신화 세미나('제주에서 할망을 묻다',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2018-돌문화공원 신화 세미나, 2018.5.12.)에서 위 각편의 등장인물이 두 명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

설문대할망은 하늘과 땅을 두 개로 쪼개어 놓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떠받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짓누르며 힘차게 일어섰다. 그러자 맞붙었던 하늘과 땅 덩어리가 금세 두 쪽으로 벌어지면서 하늘의 머리는 자방위(子方位)로, 땅의 머리는 축방위(丑方位)로 제각기 트였다.(진성기, 2005: 28)

진성기의 책에 수록된 자료이다. 문제는, 이 자료가 저자 진성기의 '개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료라는 데 있다(현승환, 2012). 위의 자료에 앞서 1981년에 출판된 진성기의 또다른 책『남국의 전설』에는, 이와 유사한 삽화가 주인공만을 달리하여 등장한다. 다음은 <하늘과 땅이 열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이야기의 앞 부분이다.

<라>

이 하늘과 땅이 열리기 이전에 있었던 태초의 천지개벽의 이야기이다.

옥황상제 밑에 도수문장(都首文章)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바깥 세계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하늘과 땅이 서로 맞붙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도수문장은 이 세계를 열어 놓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겼다.

그리하여 도수문장은 하늘과 땅을 두 개로 쪼개어 놓고, 한쪽 손으로는 하늘을 떠받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눌러서 힘차게 일어섰다.

그러자 맞붙었던 하늘과 땅덩어리는 금새 두 쪽으로 벌어지면서 그 하늘의 머리는 자방(子方)으로, 다시 땅의 머리는 축방(丑方)으로 제각기 트이면서 열려졌다.(밑줄 필자) (진성기, 1981: 18)

<라>의 밑줄 친 (나) 부분은 행위의 주체만 다를 뿐 <다>와 구체적 표현마저도 거의 흡사하다. 그런데 1981년도의 자료 <라>에서는 행위 주체가 '도수문장'이었던 것이, 그 후 2005년에 나온 <다>에서는 행위 주체가 '설문대할망'으로 바뀌어 있다. 덧붙이자면『남국의 전설』에 수록된 도수문장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진성기가 채

록한 고창학 심방 구연의 <초감제>(<나>)와 그 표현이 또 흡사하다. 일찍부터 제주도의 무속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이라는 역작을 남긴 저자에 대한 신뢰와는 별도로, <다>와 <라>와 같은 이야기들이 저자의 창작물 또는 개작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자료가 구연 현장에서 생성된 설화를 변형 없이 채록한 '각편'인지, 채록자가 창작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한 '작품'인지에 대한 가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다>와 같이 '개작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근거로 설문대 할망을 천지 분리라는 창조 행위의 주체로 간주할 수는 없다. 설문대 할망이 천지 분리의 창조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말하려면, 그 실례로 제시되는 <다>가 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 연구를 명확한 근거로 반박해야만 한다.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위의 <다> 자료는 제주도 구비 전승의 세계에서 설문대 할망이 천지 분리의 주체로 이야기되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요약컨대 '도수문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하기도 하는 천지분리 및 제주 섬 창조의 거인과, 바다를 메꾸려던 행위의 부차적 결과로 제주의 여러 산과 오름을 만든 설문대 할망을 구분하여 볼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여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가>와 같은 자료를 들어 설문대 할망이 제주 섬을 창조한 주체로 그려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Ⅲ. 설문대 할망 신앙 대상설 검토

제주 신화는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의 신화와 당신앙,

여러 직능을 지닌 소위 '일반신'에 대한 신화와 무속 신앙의 관련성은 새삼 상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대 할망이 과거에 제주의 창조 여신이었다는 입론은, 설문대 할망에 대한 신앙이나 의례가 존재했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논리적 필요성 때문인지, 선행 연구도 종종 설문대 할망이 제향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거론함으로써 설문대 할망이 과거에 제주의 창조 여신이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했다. 설문대 할망이 조선 시대에 신으로 믿어졌다는 것, 또 설문대 할망이 산신굿의 제향 대상이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근거들을 검토하여 설문대 할망이 과거에 제향의 대상이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여신 선마고와 설문대 할망 동일 인물설의 문제

설문대 할망이 조선 시대에 제주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근거로 선행 연구에서 종종 제시되던 자료가 있다. 제주 사람 장한철이 남긴 『표해록』의 정월 초5일의 기사가 그것이다. 맑은 날씨에 멀리 한라산이 보이자, 배에 타고 있던 탐라 사람들은 고향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한라산을 보며 축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 "백록선자(白鹿仙子)여, 살려줍서, 살려줍서." "선마선파(詵麻仙婆)여, 살려줍서, 살려줍서." 대개 탐라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기를, '선옹(仙翁)이 백록을 타고 한라 위에서 놀았다'라고도 하고, 또 '아주 오래 전에[邃古之初] 선마고(詵麻姑)가 서해를 걸어서 건너와 한라에서 놀았었다'라고도 한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선마와 백록에게 살려달라고 기원하는 까닭은 (달리)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 자료는 정병욱에 의해 처음 사계에 알려졌다. 정병욱은 1959년 8월 민요와 전설을 수집할 목적으로 제주도 학술 조사에 참여하였다가 『표해록』을 발견했고, 저자 장한철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전반적인 내용과 가치를 알렸다. 정병욱은 위의 기록이 "오늘까지 제주도에 널리 퍼져 있는 백록담의 전설과 선마고(선마고:설문대 할망)의 전설"이라고 하고, "위급한 처지를 당하였을 때에 무의식 중에 백록선자니 선마고를 부를 만큼 전설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깊었음을 또한 알 수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1961: 189). 위 자료는 장한철이 표해를 경험했던 1770-1771년에 제주 사람들이 설문대 할망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한라산을 향해 절하며 '활아활아(活我活我)', 즉 '나를 살려달라'고 '선마'와 '백록'에게 기도한 까닭을, 장한철은 지금 사람들이 '달리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소연의 대상이 되는 '백록'과 '선마'가 신앙의 대상이었으리라는 정병욱의 해석에는 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신앙 대상 중의 한 명인 '선마선파=선마고=선마'가 과연 '설문대 할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선마선파=선마고=선마가 설문대 할망이라는 정병욱의 진술은 이후 여러 논의에서도 줄곧 수용되어 왔지만, 사실 정병욱의 글은 그 두 존재가 동일한 존재라는 논증을 생략한 채 장한철의 기록에 나온 이야기가 설문대 할망 전설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정병욱은 같은 글의 다른 부분에서도 '선마고' 뒤에 괄호를 넣고 "現代語로는 설문대할망이라는 巨人女神임"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만(정병욱, 1961: 182),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표해록』에 기록된 선마에 대한 '언전(諺傳)'은 '선마가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 한라에서 놀았다'라는 것인데, 설문대 할망에 대한 현재

의 구비 전승 가운데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기에 '선마'와 '설문대'가 같은 존재인가는 의심스럽다. 이성준은 선마고에 대한 일화가 현재 구전되고 있는 설문대 할망 설화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고 했지만(이성준, 1989: 61), 정작 이성준이 정리한 설문대 할망에 대한 설화 가운데에도 '설문대 할망이 바다를 건너와 한라산에서 놀았다'는 내용의 설화는 없다. 설화 내용의 유사성을 근거로 주인공이 같은 인물이라고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다.

선마가 곧 설문대라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가 제시되기도 했다. '선마'의 's~m~'은 '설문대'의 's~m~'과 같으니, 선마가 설문대의 한자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현승환, 2012: 103). 그렇다면, '선마'가 설문대의 'd~'는 공유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선마와 설문대가 같은 이름의 음운적 변주라는 주장은, 이러한 의문을 해명할 수 있을 때에라야 선마와 설문대가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표해록』의 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장한철이 '표해'를 경험했던 조선 영조 때의 탐라 사람들 사이에 한라산에서 노닐었다는 '백록선자'나 '선마선파(선마고, 선마)'라는 존재가 상상되었다는 점에 국한된다. 제주도의 민간 신앙이 당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18세기 초 제주 목사였던 병와 이형상의『탐라순력도』나『남환박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당시의 제주도에는 당신앙 이외에도 한라산에서 노닌다는 신격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리라는 추론만이 가능할 뿐이다.선마가 곧 설문대 할망임이 다른 근거를 통해 확증되지 않는 한, 위의 기록을 근거로 설문대 할망이 조선 영조 때 신으로 섬겨졌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설문대 할망 한라산신설 검토

『표해록』의 기록은 설문대 할망이 과거 제주도에서 구체적으로는 '산신'으로 믿어졌다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해 왔다. 백록담에서 사슴을 타고 놀았다는 신선과 함께 병기된 선마 역시 한라산의 신격이었을 것이고, 선마는 곧 설문대 할망이니 설문대 할망은 과거에 한라산신이었으리라는 논리다. 선마를 설문대할망으로 볼 뚜렷한 근거가 없으니, 이러한 논리에 따른 '설문대 할망=한라산신설'이 분명한 근거에 입각한 주장이 아니라는 점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이밖에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신이라는 주장의 또다른 근거로 종종 내세워지곤 했던 것은 장주근이 채록한 산신굿의 사설, 또 1950년대 산신굿에서 설문대 할망이 모셔졌다는 '증언'을 소개하고 있는 이성준의 글이다. 여기에서는, 이 두 자료가 설문대 할망이 산신으로 제향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장주근 채록 산신굿 무가의 '선맹듸 할망'

다음은 장주근이 구좌면 평대리의 심방 고봉선이 구송한 산신굿을 녹음하여 풀고 지면에 소개한 것이다.

일월산신 불도님아
제주명산은 蓬萊 方丈
三神山 허령산입내다.
이山압은 堂 五百
저山압은 절 五百
五百將軍 五百 선신
어시성은 백녹담
아흔아홉골입내다.
흔골없어 왕도 범도 곰도 몸도 못내난

이섬중 올십내다마느은-
산중산 압으로 논ᄒᆞ면
아흔아홉 곰머리에
옛날옛적 골머리 당ᄒᆞ야서
산중산앞에 산신처서 일월님아
산신처서 백반님아
산신대왕 처서님아
불썬 ᄆᆞᆯ근길 닦아줍서
축원이 올십내다.
예한로 영주산 저물ᄀᆞ이 당해서
선맹듸할망으로 논ᄒᆞ면
그물ᄀᆞ에 드러사서 육지로 내조
ᄃᆞ리노아주마 ᄒᆞ시다가
백명지를 없어 예시건못ᄒᆞ니
ᄃᆞ리 못노아서
일월산신 처서님 불공입내다. (장주근, 1957: 36-37)

축원이니 불공이니 하는 기원을 들어줄 신이 거명되고, 아흔아홉 골 한라산이 의례적 공간으로 재현되며, '불썬 ᄆᆞᆯ근길 닦아줍서'라는 기원이 명시되며, 지금 하는 의례가 신에게 올리는 기원임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신굿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위의 기록이 산신굿 사설의 전체인지 부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일월산신 불도님, 산신처서 일월님, 산신처서 백반님, 산신대왕 처서님, 일월산신 처서님' 등으로 호명되는 기원 대상에게 올리는 기원의 무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사설을 기록한 장주근의 주목을 끈 것은 여기에 '선맹듸 할망', 즉 '설문대 할망'이 거론된다는 것이었다. 장주근은 이 사설에 설문대 할망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산신굿의 대상에 설문대 할망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설문대 할망이 원래 한라산신이었는지 아니면 산

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붙였지만, 산신굿의 사설에 설문대 할망이 등장하니 설문대 할망은 산신으로 제향되었다고 본 것이다(장주근, 1957: 37).

하지만 위의 사설을 살피면, 과연 설문대 할망이 '일월산신 불도님, 산신처서 일월님, 산신처서 백반님, 산신대왕 처서님, 일월산신 처서님' 등으로 호명되는 신격과 동일하거나 동격인 존재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하나의 산신을 여러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든 산신이 여러 신위인 것이든 간에, 위의 사설에서 기원 대상이 되는 신격은 여지없이 '산신'이 포함되며 '-님'으로 끝나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선맹듸할망'은 예외적이다. '산신'이 붙지도 않고, 여성 신격을 호명하는 호칭으로 종종 등장하는 '할마님'이라는 단어도 붙지 않는다.

그렇기에 위의 사설에 등장하는 설문대 할망이 축원이나 불공의 대상이 되는 신격이 아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문대 할망이 등장하는 부분을 빼면, 위 사설의 구성은 축원 대상을 호명하고, 한라산 아흔아홉골을 그려내고, 그 아흔아홉골 산머리에 당(當)한 산신님을 다시 호명하면서 축원을 올리는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교술적 본풀이의 일반적 구성 방식이다. 제주도 본풀이의 구성이나 전개방식을 고려할 때, 설문대 할망 이야기는 제향의 대상이 되는 신격의 본풀이라기보다는 무가를 구연하는 가운데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위의 사설에서 '불썬 물근길을 닦아' 달라는 축원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된 후에 설문대 할망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설문대 할망 이야기는 저 유명한, 설문대 할망이 육지로 다리를 놓아 주마고 했으나 요구했던 바를 얻지 못하자 다리를 놓다 말았다는 내용의 소위 '연륙교(連陸橋)' 삽화이다. 제주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 즉 섬과 육지를 잇는 길을 놓지 못한 설문대 할망 이야기가 길을 닦아 달라는 축원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예사롭지 않

다. '길'의 구체적 내용이나 지시 대상은 다르겠으나, '길'이라는 형상을 매개로 설문대 할망이 거론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다시 위의 무가로 돌아가 사설을 통해 재현되는 공간에도 한번 주목해 보자. 위의 사설은 제주 한라산을 백 골에서 한 골이 모자란 '아흔아홉 골'이어서 '왕도 범도 곰도 몸도' 내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제주 설화 세계에서 '아흔 아홉 골'은 꽉 찬 백 골이 되지 못해 큰 인물도, 범과 같은 맹수도 나지 못하게 된 모자란 골짜기로 이야기되곤 하는데(현용준, 1996: 13-15), 여기에서도 그 인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설화적 인식에 따르면, 한라산에 범이 없는 까닭은 제주가 아흔아홉 골이기도 했지만 제주가 육지와 분리된 섬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의 인용은 설문대 할망이 약속한 명주 옷을 받지 못하자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설화를 구연한 후에 이어지는 것이다.

> 기연디(그런데) 그 때도 그런 말이 잇엇답니다. 만일 ᄃᆞ릴 놓앗더민(놓았더라면) 호랑이 제와서(겨워서) 못 살 거라고. 호랑이·범이 들어오거든. 헌데 제주도에 웨 범이 읎어졋느냐 ᄒᆞ면은 구구곡(九九谷)이라고 아은아옵골이 이십쥬. 거(그것) 백골 뒈여서는 범이 와 살 테인디(터인데) 골 ᄒᆞ나히(하나가) 부족ᄒᆞ니 범은 범ᄒᆞ지 못ᄒᆞᆫ다. 육지 가도 제주도 사름신디(사람한테) 범이 댕이도(다니지도) 못ᄒᆞᆫ다고, ᄒᆞᆨ내 남젱(난다고). 제주도 사름안틴(사람한테는) 범이 아니 오라(와). (현용준 외, 1981: 713)

위의 설화적 인식에 따르면 한라산에 범이 없는 것은 한라산이 백 개의 골짜기가 아닌 아흔 아홉 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문대 할망이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범 없는 아흔아홉골을 그려내면서 그런 장소에 연

관된 또다른 이야기, 즉 설문대 할망이 다리를 놓지 않아 범 없는 아흔 아홉 골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덧붙는 것이다. 장주근이 채록한 산신굿 무가에 포함된 다리를 놓지 못한 설문대 할망 이야기는, 이런 설화적 인식과 동궤에 있다.

요컨대, 위의 무가에서 설문대 할망은 축원의 대상이 되는 산신이 아니다. 축원의 목적은 일월산신 등의 산신에게 '불썬 물근길'을 닦아 달라는 것이다. 일찍이 설화 속 '선맹듸 할망(설문대 할망)'은 길을 못 놓았지만, 지금 축원의 대상이 되는 산신은 길을 낼 수 있다. 설문대 할망은 산신굿의 기원 대상이 아니라, '불썬 물근길'을 내 줄 산신과 대비되는 '길을 내지 못한' 설화 속 인물인 것이다.

왕도 범도 없는 한라산이라는 의례적 공간의 특성 및 길 닦기라는 의례의 목적은, 설문대 할망과 관련되는 이야기-다리 놓기의 실패, 왕도 범도 없는 산이 된 한라산-가 연상되어 산신굿 무가 속에 삽입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설화적 인식이 무가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주근이 채록한 산신굿 무가에 나오는 '선맹듸 할망'을 의례 대상으로서의 신격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장주근이 기록한 산신굿 무가에 설문대 할망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당시에 설문대 할망이 '산신'으로 믿어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장주근이 채록한 산신굿 무가 사설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1950년대에도 설문대 할망이 '옛 한라 영주산'의 내력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오랜 옛날'의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 설문대 할망의 연륙교 삽화가 무가 사설에도 원용될 정도로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설화 유형이었다는 것 정도에 국한된다.

2) 이성준 채록 자료의 설문대 할망

다음으로, 1950년대 제주도 산신굿에서 설문대 할망이 모셔졌다는 또다른 근거로 제시되곤 하는 1988년의 한 채록 자료(이성준,

1989: 79-80)를 보자. 이 자료는, 조천읍 신촌리에 설문대 할망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는 문헌 기록이 구전으로도 전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성준은 이원조의 『탐라지』 <기문편>에 조천읍 신촌리에 설문대 할망의 발자욱이 남아 있다는 기록이 있음을 현용준 교수에게서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천리와 신촌리 일대를 조사했다고 한다(1989: 79). 조사자는 설문대 할망에 대해 묻고, 다음으로 설문대 할망의 발자국에 대해 물은 다음, 마지막으로 산신제 사설 중에 설문대 할망에 대한 것도 있었느냐고 묻는다. 이 화제에 대한 조사자와 제보자 사이의 대화를 보자. 원 자료는 제보자의 말을 본문으로 삼고 조사자의 말은 괄호 안에 넣었는데,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대화체로 재구성하였다.

조사자: 건디 할머니 옛날 산신제도 해나수꽈?
제보자: 해났쥬.
조사자: 거믄 산신제에 설문대할망 소리도 이서나수꽈? 사설중에?
제보자: 닛날 해나긴 했는디 몰라. 우리 젊을 때까진 불공드릴 때 해났쥬. 저굴막(舊左邑 東福里)인가 벨방(舊左邑 下道里) 심방이 그거 잘 해났쥬.
조사자: 어떤 심방 마씀 그 심방 이름 알아집네까?
제보자: 그 머시냐 김 머시던가, 이 머시던가? 오래부난 잘 몰라. 그 심방이 우리영 산신제(山神祭) 불공 드릴 때 잘해났쥬.
조사자: 그 사설 ᄒᆞ썰도 모르쿠과?
제보자: 이젠 몰라. 해난 거 듣기만 했시니까. 건디 백록산신(白鹿山神)이영 오백장군(五百將軍)이영 해나긴 해서.

조사자는 산신제를 했었느냐고 묻는다. 제보자는 심방이 잘 하던 산신제를 기억한다. 동복리 심방이었는지 하도리 심방이었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잘 하는 심방이 있었다고 한다. '불공'이라고는 하지만, 심방이 했었다고 하니 그 산신제는 아마도 굿의 형태였을 것이다.

조사자는 그 산신제의 사설 중에 설문대 할망도 나왔었느냐고 묻는다. 산신굿에서 설문대 할망이 사설에 등장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제보자의 대답은 기대를 벗어난다. 제보자는, '옛날 (산신제를) 하기는 했었는데, (설문대 할망이 사설에 나왔었는지는) 모른다'라고 답한다. 조사자가 '그 사설 조금도 모르겠느냐'라고 묻지만, 제보자는 '하던 걸 듣기만 해서 이제는 잘 모른다'라고, 모른다는 대답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보자는 다른 기억의 단편을 제시한다. '백록산신과 오백장군은 (사설에서) 하기는 했었다'라는 것이다. 결국 제보자는, 제보자가 들었던 산신굿 사설에 백록산신과 오백장군이 등장했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을 따름이다.

제보자가 기억하는 설문대 할망은 키가 커서 다리를 놓아주마던 설문대 할망이다(이성준, 1989: 79-80). 이 설화를 기억하는 제보자가 산신제 사설에 설문대 할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답한 것, 또 산신제 사설에 등장하는 백록산신과 오백장군만을 기억한다는 것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설문대 할망이 산신제 사설에 등장했었는지 이 제보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제보자가 경험한 산신제 사설에서는 적어도 백록산신과 오백장군이 등장했었다는 것일 따름이다.

장주근이 채록한 산신굿 사설에도 아흔아홉골 한라산을 묘사하는 부분에 '오백 장군 오백 선신'이 나오고 제보자가 기억하는 사설에도 백록산신과 오백장군이 나오니, 제보자가 경험했던 산신굿 무가 사설에도 장주근의 채록본처럼 설문대 할망이 나왔으리라는 적극적 추정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주근 채록본의 설문대 할망은 제향 신격이 아니라 무가 구성상 삽입된 삽화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크고, 또 오백 장군과 오백 선신은 설문대 할망과 '함께'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한라산을 묘사하는 장면에 그 둘만 '따로' 등장하므로, 장주근의 채록본과 위 제보를 엮어 백록산신과 오백장군이 등장했으

니 설문대 할망도 백록산신이나 오백장군과 같은 신격으로 사설에 등장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위의 제보 역시, 장주근이 채록한 산신굿의 무가 사설 자료와 마찬가지로 설문대 할망이 산신제의 제의 대상으로 섬겨졌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신으로 제향되었다는 명백한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Ⅳ. 비교문학적 일반론 검토-오키나와의 경우

제주도 이외의 이른바 '주변 민족 신화'에서 창조 행위의 주체였던 여성 거인의 사례가 발견되며, 설문대 할망 역시 이와 같은 계보에 놓이는 창조신이라는 주장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여러 지역에서 창조의 여성 거인신이 확인되므로 과거에 창조신은 여성 거인신, 혹은 여성신이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구체적 사례를 토대로 하는 귀납적 일반화라 할 터인데, 주지하다시피 귀납적 일반화에 따른 결론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귀납적 진리는 반례가 확인되는 순간 부정될 수밖에 없는 임시적 진리인바, 여러 지역에서 창조의 여성 거인신이 확인되므로 제주도의 여성 거인도 그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 전개상 무리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주변 민족 신화의 사례에서 귀납된 경향성을 연역적 진리로 삼아 제주도의 사례에 덮어씌우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적 문제와 함께, 주변 민족 신화에서 창조신적 면모를 지닌 여성 거인이 확인된다는 것이 과연 실제에 부합하는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구비 전승되는 거인 설화에서 창조 여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례로 제시되었던 오

키나와 설화의 경우, 거인 설화의 기원이 창세의 여신, 혹은 창세의 여성 거인신 신화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의 구비 전승 가운데에는 천지를 분리했다는 '아만추'라는 거인 이야기가 있고, 오키나와에 존재했던 류큐 왕조의 관찬 문헌에는 류큐 국토를 창조하고 인류의 기원에 기여한 '아마미쿠'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오키나와에도 여성 거인 창세신이 있었다'라는 선행 연구는, 이러한 아만추와 아마미쿠를 '여신'으로 단정하는 한편 문헌 기록의 아마미쿠와 구비 전승의 아만추를 관련지여 천지를 분리한 거인 아만추 이야기가 '변질'되어 국토와 인간을 창조하는 아마미쿠 이야기로 변했다고 보는 것이다(허남춘, 2014).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키나와와 류큐 설화의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첫째, 아만추와 아마미쿠를 '여신' 내지는 '여성'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천지를 분리하거나 해일을 막거나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을 한 걸음에 내딛거나 하는 사건의 주인공인 민간 전승의 아만추는 '거인'이라는 표상은 지닐지언정 특별한 성별의 표지는 달고 있지 않다.

오키나와의 민간 전승 세계에서 아만추의 성별이 구체화될 때, 그것은 오히려 남성으로 드러나는 경향을 보인다. 오키나와 섬 남부 사시키(佐敷)의 쓰하코(津波古) 마을에서 행해지는 <장자 우후슈(長者の大主)>라는 민속 예능을 보자. 이 예능은 장수하여 백 스무 살이 된 '우후슈'가 많은 자손들에게 둘러싸인 행복과 농사의 풍요를 축하하는 한편 내년의 풍작을 기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예능에서 아만추는 우후슈에게 오곡 종자와 농사법을 전해주고 풍작을 약속하는 역할로 등장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목소리만으로 출연하기도 하지만 쓰하코 마을의 예능에서는 아만추가 실제로 등장한다. 한 손에 길다란 봉을, 다른 한 손에는 부채를 든 아만추는 키가 보통 사람의 두 배는 훌쩍 넘는 거인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아만추는 남성의 표지인 수염을 달고 있다(赤嶺政信, 1998).

아마미쿠가 여성으로 등장하는 문헌 기록이나 설화의 사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여성 아마미쿠가 등장하는 경우는 창조의 존재를 아마미쿠-시네리쿠 계열의 이름으로 불리는 남녀 배우신으로 상상하는 각편, 창조의 존재를 단독신으로 그려낸다 하더라도 그가 아이를 낳는 삽화가 포함되어 이야기의 내적 논리상 아마미쿠를 여성이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설화 각편에 국한된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거인 아만추는 여성'이라는 언술은 언제나 타당한 보편적 진실은 아니다.

둘째, '천지를 분리하는 거인'이라는 구비 전승에서의 형상이 아만추가 지녔던 원래의 신화적 모습이고 천지 창조의 모습이 없는 왕조 문헌 기록의 아마미쿠는 원래의 모습에서 변질된 것이라는 견해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 구비로 전승된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왕조 시대의 문헌 기록보다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모든 구비 전승이 문헌 기록보다 먼저 발생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게다가 오키나와의 경우는 문헌에 기록된 왕조 신화의 영향 하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짙은 구비 전승의 사례도 적지 않다(정진희, 2012; 2014).

게다가 오키나와의 설화적 상상계 내에서 거인 화소는 신화가 아닌 오히려 비(非) 신화적 계보에 놓인다(정진희, 2011). 오키나와 설화의 여러 거인 가운데 아만추만을 놓고 고려한다고 해도 아만추가 '거인'이라는 화소를 지니는 것은 탈신화화, 탈신성화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으므로(外間守善·桑原重美, 1990: 10), 설화 속 거인의 존재를 과거 '거인신'의 흔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요약건대, '천지를 분리하는/ 천지를 창조하는 거인 여성신 아만추'라는 개념은 오키나와의 신화적 관념이라고 확증할 수 없으며, 오히

려 오키나와의 설화적 상상계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매력적 가설이라 할지라도 확증할 수 없다면 가설일 뿐이기에, 가설을 일반적 사례로 삼아 제주도의 경우에 적용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작금의 상황에서는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오키나와의 경우가 하나의 사례로서 제시되는, '여성 거인 창조신의 존재'라는 귀납적 결론의 일반화는 보류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설에 의거하여 설문대 할망을 주변 민족 신화에서도 확인되는 여성 거인 창조신의 하나로 간주할 수는 더더욱 없다.

Ⅴ. 결론을 대신하여-남은 과제

설문대 할망은 제주 섬을 만든 창세의 여신이었는가? 설문대 할망이 천지를 분리하고 제주를 창조했다는 신화의 흔적으로 제시되곤 했던 설화 각편은 시원적 창조 행위의 주체가 설문대 할망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설문대 할망은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려 했을 뿐, 시원적 창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덧붙이자면 표선리 백사장을 만들었다는 설문대 할망조차, 바다를 메운다는 행위의 주체이지 시원적 창조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설문대 할망 설화의 대표적 유형인, 설문대 할망이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려다가 그만두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변주되고 있는 것이다.

설문대 할망은 과거에 제주 사람들이 섬긴 신격이었는가? 조선 시대에 섬겨진 '선마'가 곧 설문대 할망이니 설문대 할망은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신으로 여겨졌다거나, 설문대 할망이 산신굿 사설에 등장하니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신으로 섬겨졌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선마와 설문대 할망을 동일 인물로 볼 이유는 뚜렷하지 않고, 또 설문대 할망이 등장하는 산신굿 사설은 설문대 할망을 제향 대상

으로 거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문대 할망이 신격으로 제향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주변 민족의 신화에 여성 거인 창세신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여성 거인 창세신의 존재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제주도의 경우 설문대 할망이 그런 존재였다는 주장은 어떠한가? 가령 오키나와의 경우, 설화 속 거인은 늘 여성이지도 않고 또 '거인'이라는 화소는 오히려 비(非) 신화적 성격과 전승 맥락을 지닌다. 여성 거인 창세신의 존재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 결과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설문대 할망이 제주의 창조 여신이었다는 통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설로서 확고하게 자리잡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학술적 입론으로서의 이른바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은 여타의 이론을 불식시킬 만큼,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할 만큼의 정설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글의 결론은 설문대 할망은 제주의 창조 여신이 아니라는 데 있는가? 그렇지 않다. 다만 이 글이 말하려는 바는, 설문대 할망이 제주의 창조 여신이었다는 통설은 현재의 논의 수준으로는 정설의 자격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을 기정사실로 전제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에 매몰되지 않은 채 유연한 시각을 지녀야, 설문대 할망의 '정체'에 다가설 수 있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설문대 할망의 신화성에 대한 논의, 설문대 할망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통설의 그늘을 벗어나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정설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논쟁을 포함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설문대 할망을 주인공으로 하는 전승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텍스트 비판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설문대 할망 설화는 일차 자료의 '조작'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설문대 할망이 자식들이 먹일 죽을 쑤다가 그 죽솥에 빠져 죽은 오백 장군의 어머니라는 각편이 현대적 개작이라는 입장도 개진된 바 있다. 현대의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출처 없이 유통되는 자료나 새롭게 창작된 자료들, 현대적 문식이 가미된 자료들이 무비판적으로, 같은 위상과 자격을 지닌 자료로 활용되고도 있다.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 온 일차 자료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설문대 할망이 과거 제주도의 설화 세계에서, 혹은 한국어 문화권 내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왔는지를 시대 순으로, 매체별로 찾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일제 강점기 때 이루어진 제주도 현지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이즈미 세이치(泉靖一)의 『濟州島』에 수록된 설문대 할망(ソルマンデ姥, Solmande Halman)에 대한 이야기, 역시 일제 강점기 때 제주인 김두봉이 정리한 『濟州島實紀』에 올라 있는 <雪漫頭姑의 傳說>을 비롯, 그보다 시대가 좀더 앞서는 문헌 기록인 19세기 초엽의 『탐라지초본』 등 시대별 자료를 정리하고 대비하여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례로 설문대 할망 설화를 논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설문대 할망과 오백장군 모자(母子)설'은, 이런 정리 작업과 텍스트 비판에 의해 설문대 할망에 대한 설화로서의 위상과 가치가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설문대 할망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창조 여신설의 확정이나 검증 여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설문대 할망 이야기는 마고 할미 설화를 포함한 여성 거인 설화라는 범주 안에서, 또 태초 여성신의 속화라는 차원에서 제주라는 지역 사례로 주로 논의되어 왔는데, 설문대 할망을 창조 여신이 아닌 해양 신앙과 관련되는 마조나 관음 계열로 파악한 선행 연구가 이미 없지 않고, 앞서 언급한 이즈미 세이치의 채록 자료에서는 설문대 할망의 외래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설문대 할망이 제주의 상상계 내에서 어

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또 그것은 주변 설화 전승 집단의 상상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창조 신화'라는 주제의 한계를 벗어나 폭넓게 살필 때, 설문대 할망의 설화적 계보 및 지형을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설문대 할망을 소재로 하는 현재의 문화적 재현과 설문대 할망에 대한 학술 담론에 대한 메타적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설화 채록의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잘 포착되지 않는 설문대 할망이 현재의 문화 공간에서는 제주라는 지역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향유되고 있는 현실, 설문대 할망을 창조의 여신, 모성의 대모신으로 의미화하는 학술 담론 및 문화 산업의 흐름 등은 예사로 보아 넘길 것이 아니다. 설문대 할망 이야기가 오늘날 어떻게, 왜 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이어도 전설'의 부각이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한 논의(김동현, 2016)의 문제의식은, 설문대 할망 설화의 부각을 메타적으로 고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설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이 전제하는 '여신의 쇠락', '신화의 타락과 전설 및 민담의 출현'이라는 선입견을 변주하는 데 그치기에는, 설문대 할망 이야기와 이를 둘러싼 관련 담론이 제기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어쩌면 설문대 할망 이야기는 신화가 되려는 전설일 수도 있고, 국가주의에 포획되어 재편되는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다. 설문대 할망의 신화성에 대한 천착은 물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설문대 할망 이야기에 다각도로 접근할 때, 설문대 할망은 여러 인문학적 주제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설문대 할망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의 검토와 제안이, 연구의 확장과 심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참고문헌

강진옥, 1993,「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한국민속학』25, 3-47.

권태효, 2002,『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_____, 2010,「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탐라문화』37, 223-260.

_____, 2014,「지형창조 거인설화의 성격과 본질」,『탐라문화』46, 7-38.

김동현, 2016,『제주, 우리 안의 식민지』, 글누림.

박종성, 2010,「비교신화의 관점에서 본 설문대할망」,『구비문학연구』31, 235-268.

송화섭, 2008,「한국의 마고할미 고찰」,『역사민속학』27, 127-271.

신동흔, 2014,『살아있는 한국신화』, 한겨레출판.

이성준, 1989,「설문대할망說話硏究-特徵과 變異過程을 中心으로」,『국문학보』10, 54-80.

장성철,「거짓투성이 설문대 할망 신화<1>-<14>」,『미디어 제주』, 2017.5.1-2017.8.21.

장주근, 1957,「濟州島女神考」,『제주문화』창간호, 29-62.

장한철(김지홍 역), 2009,『표해록』(e-book), 지식을만드는지식.

전경수, 2009,「탐라 신화의 고금학과 모성중심사회의 신화적 특성: '설문대할망'과 '삼신인'을 중심으로」,『세계신화의 이해』, 소화.

정병욱, 1961,「漂海錄解題」,『인문과학』6, 175-172.

정진희, 2018,「제주 설화 <설문대 할망>의 거인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인문과학』71, 163-196.

조현설, 2010,「마고할미·개양할미·설문대할망-설문대할망 전승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민족문학사연구』41, 140-173.

진성기, 1981,『南國의 傳說』, 敎學社.

_____, 1991,『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허남춘, 2014,「설문대할망의 창세신적 특성과 변모양상-주변민족 여성신

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반교어문연구』38, 311-348.
현승환, 2012,「설문대 할망 설화 재고」,『영주어문』24, 91-118.
현용준 외, 1981,『한국구비문학대계9-2』(제주도 제주시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용준, 1996,『제주도 전설』개정판, 서문당.
外間守善·桑原重美, 1990,『沖縄の祖神アマミク』, 築地書館.
赤嶺政信, 1999,「アマミク·シネリク」,『しにか』Vol.10/No.9.
泉靖一, 1966,『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Abstract

The Reexamination of the Idea of "the Old Woman of Sŏlmundae" as the Goddess of Creation

Jeong, Jin-Hee*

It is a widely acknowledged idea that "the old woman of Sŏlmundae," a female giant featured in folktales of Jeju Island, indicates the goddess who created Jeju Island. A small number of scholars, however, have presented counterarguments. This article reflects upon the validity of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e old woman of Sŏlmundae" as the goddess of creation by reexamining a number of materials that have been used to support such an understanding. First, I argue that in the folktales that scholars have been using to support that "the old woman of Sŏlmundae" was believed to separate heaven and earth and created Jeju Island, the subject of separation and creation in those tales is in fact not "the old woman of Sŏlmundae" but different character. Second, scholars argue that "the old woman of Sŏlmundae" has been recognized as a goddess since the Chosŏn period by suggesting that the term "sŏnma 詵麻" mentioned in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漂海錄(1771) by Chang Han-chŏl indicates "the old woman of Sŏlmundae." I argue that such a suggestion is not verifiable. Third, existing studies acknowledge the records of shamanistic rites transcribed by Chang Chu-gŭn and Yi Sŏng-jun as the evidence

* Ajou University

supporting the idea that “the old woman of Sŏlmundae” was traditionally the object of ritual rite for the mountain spirits. My examination of those two materials, however, reveals that they do not specifically indicate “the old woman of Sŏlmundae” as the object of rite. I argue, in sum, that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that “the old woman of Sŏlmundae” is the goddess of creation is not verified sufficiently by the remaining documents. That does not mean that “the old woman of Sŏlmundae” is not definitely the goddess of creation. The records transcribed by a Japanese scholar, Izumi Sēich(泉靖一), can be used as supporting evidence for the idea of “the old woman of Sŏlmundae” as the goddess of creation. It also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the old woman of Sŏlmundae” is not an indigenous goddess of Jeju Island but a goddess of foreign origi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idea of “the old woman of Sŏlmundae” as the goddess of creation calls for more investiga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Keywords : the old woman of Sŏlmundae, folktales, Jeju Island, the goddess of creation, the female giant, a goddess of foreign origin

교신 : 정진희 14105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0번길 100,
301동 1103호
(E-Mail : jajung1@ajou.ac.kr)

논문투고일 : 2019. 01. 22
심사완료일 : 2019. 01. 31
게재확정일 : 2019. 02. 01